

# 高麗藏(初雕藏・再雕藏)의 底本에 對한 一考\*

A Study on the Bottom Book of the Tripitaka Koreana  
- the First Tripitaka Koreana,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

柳 富 鉉 (Yoo, Boo-Hyun)\*\*

##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校正別錄에 나타난 再雕藏의 底本 |
| 2. 開寶藏 계열 판본의 대조를 통해 분석된 高麗藏의 底本 | 4. 결 언<br><참고문헌>     |

## < 초 록 >

본 연구는 현존하는 13종의 개보장본을 중심으로 조성장본, 초조장본, 재조장본의 대조 분석을 통해 초조장본, 재조장본의 저본에 대해서 다시 고찰해보고, 교정별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재조장의 저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초조장과 재조장은 개보장의 수정 복각본으로 추정했던 필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특히 재조장의 경우 수기법사가 국본·단본·송본 가운데 대부분 송본을 제1차적인 저본으로 삼은 다음 이 송본을 국본·단본과 대교하고, 국본·단본 등에 의거해서 송본을 교감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이 수정된 송본은 바로 재조장을 간행함에 있어 그 판각의 저본 즉 등재본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송본에 없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전은 국본이나 단본 등을 제2차적인 저본으로 삼아 이를 수정하여 등재본으로 삼아 판각을 하거나, 새로 등재본을 마련해서 판각한 다음 재조장에 편입시키거나 대체시켰던 것으로 주장했던 필자의 견해도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要語: 고려장, 초조장, 재조장

\* 이 論文은 2011학년도 大眞大學校 學術研究費 支援에 依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1년 5월 25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bottom books of the First Tripitaka Koreana and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agai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Joseongjangb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and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with the existing 13 kinds of Tripitaka Kai bao, and to clarify the bottom book of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through the analysis of Kyojeongbyullok.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s idea is again confirmed that the First Tripitaka Koreana and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are the modified 'bokgakbon' of Tripitaka Kai bao. Especially for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Sugi, the Buddhist monk, used largely the Songbon as the first bottom book among the Gookbon, the Danbon, and the Songbon, and compared it with the Gookbon and the Danbon to proofread and correct.

In addition, the corrected Songbon was used as a 'deungjaebon', the bottom book for making woodblocks of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And it seems clear that the scriptures, either missing in the Songbon or with some critical faults, were corrected with the Gookbon or the Danbon as the secondary bottom book. Either this corrected bottom book was used as a 'deungjaebon' or a newly carved 'deungjaebon' was included or substituted in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Therefore, this researcher's argument over the above fact seems to be well confirmed.

Key words: Tripitaka Koreana, the first Tripitaka Koreana,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 1. 서 언

필자는 2001년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1)에서 湖林博物館에 收藏되어 있는 初雕藏本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本 및 再雕藏本과의 대조, 그리고 守其法師가 편찬한 『校正別錄』의 校勘記와 이 교감기에서 언급되었던 재조장본과 조성장본의 대조를 통해 高麗藏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밝혔다.

그 결과 첫째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초조장본을 중심으로 조성장본, 재조장본과의 대조 분석을 통해서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77권의 초조장본 가운데 세 板本과의 대조가 가능했던 51권의 초조장본과 이에 해당되는 재조장본은 개보장의 覆刻本 또는 修訂覆刻本임을 구명하였다. 둘째 교정별록의 校勘記와 이 교감기에서 언급되었던 재조장본과 조성장본의 대조 분석을 통해서 守其法師가 재조장을 조조할 때에 이용한 底本과 對校本에 대해 그 대략적인 것을 밝혔다. 즉 守其法師는 國本(즉 초조장본)·丹本(즉 거란장본)·宋本(즉 개보장본) 가운데 대부분 宋本을 제1차적인 저본으로 삼은 다음 이 宋本을 國本·丹本과 대교하고, 國本·丹本 등에 의거해서 宋本을 교감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이 수정된 송본은 바로 재조장을 간행함에 있어 그 판각의 저본 즉 登梓本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宋本에 없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經典은 國本이나 丹本 등을 제2차적인 저본으로 삼아 이를 수정하여 登梓本으로 삼아 판각을 하거나, 새로 등재본을 마련해서 판각한 다음 재조장에 編入시키거나 代替시켰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자의 高麗藏의 저본에 대한 연구의 후속편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13종의 개보장본을 중심으로 조성장본, 초조장본, 재조장본의 대조 분석을 통해 초조장본, 재조장본의 저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교정별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재조장의 저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 2. 開寶藏 계열 판본의 대조를 통해 분석된 高麗藏의 底本

開寶藏 現存本을 중심으로 趙城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을 대조하여, 개보장본의 판본 성격과 趙城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의 저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1> “開寶藏 現存本の 板本 및 趙城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の 底本”과 같다.

<表 1> 開寶藏 現存本の 板本 및 趙城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の 底本

| 高麗藏<br>經順 | 開寶藏                              | 函次         | 刊記<br>印出記            | 開寶藏<br>板本      | 趙城藏<br>底本        | 初雕藏<br>底本  | 再雕藏<br>底本       | 參考<br>事項   | 再雕藏<br>中華藏                |
|-----------|----------------------------------|------------|----------------------|----------------|------------------|------------|-----------------|------------|---------------------------|
| 0001      |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06<br>(大般若波羅蜜多經 卷206) | 秋<br>(021) | 開寶五年<br>元符三年         | 初本             | 開寶藏<br>初本        |            | 開寶藏<br>初本       | 1)<br>2)   | 2-442<br>3-45             |
| 0001      |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81<br>(大般若波羅蜜多經 卷581) | 李<br>(059) | 開寶五年<br>없음           | 初本             | 開寶藏<br>初本        |            | 開寶藏<br>初本       | 3)         | 4-1121<br>6-795           |
| 0022      | 대보적경 권111<br>(大寶積經 卷111)         | 文<br>(083) | 未詳 <sup>4)</sup>     | 初本             | 開寶藏<br>修訂本       |            | 開寶藏<br>初本       | 5)<br>6)   | 6-861<br>9-367            |
| 0056      | 대방등대집경 권43<br>(大方等大集經 卷43)       | 有<br>(093) | 未詳 <sup>7)</sup>     | 初本             | 開寶藏<br>修訂本       |            | 開寶藏<br>初本       | 8)<br>9)   | 7-412<br>缺 <sup>10)</sup> |
| 0116      | 묘법연화경 권7<br>(妙法蓮華經 卷7)           | 없음<br>11)  | 開寶四年<br>熙寧四年<br>大觀二年 | 初刻本            | 開寶藏<br>再刻<br>修訂本 |            | 開寶藏<br>再刻<br>初本 | 12)<br>13) | 9-791<br>15-586           |
| 0135      | 아유월치차경 권상<br>(阿惟越致遮經 卷上)         | 草<br>(139) | 開寶六年<br>熙寧四年<br>大觀二年 | 未詳             |                  |            | 開寶藏本<br>未詳      | 14)        | 10-197<br>缺               |
| 0165      | 대운경청우품제육십사<br>(大雲經請雨品第六十四)       | 大<br>(150) | 開寶六年<br>없음           | 初本             | 開寶藏<br>修訂本       |            | 開寶藏<br>初本       | 15)        | 10-1121<br>18-58          |
| 0650      | 잡아함경 권30<br>(雜阿含經 卷30)           | 盛<br>(272) | 未詳                   | 再修訂本<br>16) 初本 | 開寶藏<br>修訂本       | 開寶藏<br>初本  | 開寶藏<br>初本       | 17)<br>18) | 18-1003<br>32-989         |
| 0650      | 잡아함경 권39<br>(雜阿含經 卷39)           | 川<br>(273) | 未詳                   | 未詳             | 開寶藏本<br>未詳       |            | 開寶藏本<br>未詳      | 19)        | 18-1101<br>33-25          |
| 0750      | 성법인경<br>(聖法印經)                   | 未詳<br>20)  | 開寶七年<br>21)          | 初本             | 開寶藏<br>初本        | 開寶藏<br>初本  | 開寶藏<br>初本       | 22)        | 19-719<br>34-312          |
| 0802      | 불본행집경 권19<br>(佛本行集經 卷19)         | 令<br>(296) | 開寶七年<br>熙寧四年         | 初本             | 開寶藏<br>初本        |            | 開寶藏本<br>未詳      | 23)        | 20-709<br>35-738          |
| 0890      | 십송율 권46<br>(十誦律 卷46)             | 存<br>(313) | 開寶七年<br>大觀二年         | 修訂本            |                  |            | 開寶藏<br>修訂本      | 24)<br>25) | 21-965<br>缺               |
| 1259      | 어제비장전 권13<br>(御製秘藏詮 卷13)         | 없음<br>26)  | 없음<br>大觀二年           | 修訂本            |                  | 開寶藏<br>修訂本 | 開寶藏<br>初本       | 27)<br>28) | 35-880<br>缺               |

참고 1) 이 大般若波羅蜜多經 卷206에 있어서 開寶藏本(山西省博物館所藏本), 趙城藏本, 再雕藏本 사이에 발견된 文字異同은 없다.

참고 2) ① 이 大般若波羅蜜多經의 제3권 제10장 제17행에서 趙城藏本에는 “無邊世界不惱觸水”로 되어 있는데(『중화대장경』 1冊, p.24의 中段 제17행), 再雕藏本에는 “無邊世界而不惱觸水”로 되어 있어 “而” 1字가 修訂 補入되어 있다(이 行의 字數에 있어서 趙城藏本은 14字로 되어 있고, 제조장본은 15字로 되어 있다). 이것은 再雕藏本에서 수정된 문자이동이다.

참고로 隋唐 시대에 石刻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4冊, p.6의 제6행 제14字), 磧砂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 등에도 再雕藏本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중화대장경』 1冊, p.29의 下段 제5행).

② 大般若波羅蜜多經의 再雕藏本 제383권 제21장 제14행(『고려대장경』 3冊, p.696의 下段)의 “界不” 사이에 趙城藏本에는 “應云 … 法界”(『중화대장경』 4冊, p.782의 上段 제14행 제9字~제15행 제5행) 17字가 修訂 添入되어 있다(이 行의 字數에 있어서 趙城藏本은 14字이고 제16행은 19字이다. 再雕藏本은 14字이다). 趙城藏本의 이 修訂 添入字는 그 底本인 開寶藏 修訂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隋唐 시대에 石刻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5冊, p.231의 제14행)과 磧砂藏本, 普寧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 등은 再雕藏本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4冊, p.783의 下段 제9행).

③ 大般若波羅蜜多經 제383권의 경우 再雕藏本의 底本인 開寶藏本은 그 初本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趙城藏本의 底本인 開寶藏本은 그 修訂本으로 판단된다.

④ 大般若波羅蜜多經의 趙城藏本 제554권 제2장에서 제6행의 한 행과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의 다섯 행, 제12부터 제17행까지의 여섯 행이 錯行되어 있는데(『중화대장경』 6冊, p.537의 下段 제3행), 初雕藏本과 再雕藏本에는 올바르게 修訂되어 있다.

참고 3) 이 大般若波羅蜜多經 卷581에 있어서 開寶藏本(中國佛教圖書文物館所藏本), 趙城藏本, 再雕藏本 사이에 발견된 文字異同은 없다.

참고 4) 이 開寶藏本 大寶積經 卷111(國家圖書館所藏本)의 卷末 가운데 刊記가 기재된 부분이 殘缺되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참고 5) ① 이 開寶藏本 大寶積經 卷111(國家圖書館所藏本)의 제28장 제7행 中段에는 본문인 揭句가 없는 대신에 “諸藏皆少一句”의 내용이 小字로 註記되어 있다. 반면 趙城藏本에는 이 註記의 자리에 5字로 된 揭句 “度脫生死海”가 기재되어 있다. 이 “度脫生死海” 5字는 開寶藏 修訂本에서 修訂 補入된 내용이고, 趙城藏本에 기재된 “度脫生死海”는 그 저본인 開寶藏 修訂本에서 보임된 내용이 그대로 覆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再雕藏本에도 이 “度脫生死海” 5字가 기재되어 있는데, 再雕藏本에 기재되어 있는 “度脫生死海” 5字의 자형과 글자의 위치는 趙城藏本과 동일하지 않다. 아마도 趙城藏本은 本文 대신 註記가 기재된 開寶藏 初本이 그 저본 즉 登梓本이 되었고, 이 “度脫生死海” 5字가 登梓本이 된 개보장 초본에 筆寫 補入된 다음 覆刻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한편 大寶積經 卷120 卷末의 내용(“… 本性如是 世尊說已 毘耶娑仙 <即新經中 廣博仙也 唐梵二音 方言異耳> 一切仙衆 心生歡喜 歎言善哉 <比因披讀 觀斯文闕 三藏泥洹 詢疑無所 遂檢舊藏 經內獲得 毘耶娑經 與此梵本是同 先後譯異 兩文對勘 二理無殊 故以舊文 續斯新闕 後尋覽者 幸無惑焉 開元 戊辰歲 西京崇福寺沙門智昇述記>”)에 의거하면, 開寶藏本 大寶積經 卷111(國家圖書館所藏本)의 제28장 제7행 中段에 小字로 기재되어 있는 “諸藏皆少一句”의 내용은 智昇이 註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로 위의 인용문 중에서 언급된 “毘耶娑經”은 “毘耶娑問經”인데 이 경전의 卷末에는 “… 本性如是 世尊說已 毘耶娑仙 一切仙衆 心生歡喜 歎言善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중화대장경』 9冊, p.1035의 上段).

참고 6) ① 이 大寶積經 제1권에서 再雕藏本 제1권 제8장 제9행 제4字 “薩”字(『고려대장경』 6冊, p.3의 中段) 다음에 趙城藏本에는 “照光菩薩” 4字가 修訂 補入되어 있다(『중화대장경』 8冊, p.389의 下段 제9행). 이 제9행의 字數는 再雕藏本의 경우 14字이고, 趙城藏本의 경우 18字이다. 참고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8冊, p.3의 제14행)과 기타 大藏經本(資福藏本, 磧砂藏本, 普寧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도 趙城藏本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8冊, p.396의 中段 제2행).

② 한편 再雕藏本 大寶積經 제10권 제2장 제18행 제14·15字인 “如是” 2字는 再雕藏本에서 이루어진 修訂 添入字이다(『고려대장경』 6冊, p.73의 中段). 趙城藏本(『중화대장경』 8冊, p.473의 下段 제18행)에는

이 문자가 없다. 이 행의 字數에 있어서 제조장본은 제18·19행이 15字이고, 조성장본은 모두 14字이다. 참고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8冊, p.55의 제10행)과 기타 大藏經本(資福藏本, 積砂藏本, 普寧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淸藏本)은 趙城藏本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8冊, p.482의 上段 제9행).

③ 다른 한편, 大寶積經에서 再雕藏本과 趙城藏本은 계통이 다른 부분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제51권부터 제60권까지의 板本은 再雕藏本과 趙城藏本이 서로 다른 계통의 판본이다. 아마도 趙城藏本이 후에 再刻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 趙城藏本 大寶積經 제19권 제8장의 板首題는 “大寶積經第十九卷 第八張 龍字号”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龍字号”는 千字文 順番으로 제73번째에 해당되는 軼號(또는 函次)이다. 趙城藏本の 이와 같은 板首題의 기재 양식은 開寶藏의 전형적인 것이다. 반면 初雕藏本과 再雕藏本の 전형적인 板首題의 기재 양식은 “龍字号” 가운데 “字号” 2字가 생략된(또는 삭제된) 형태인 “大寶積經第十九卷 第八張 龍”이다. 그런데 初雕藏 南禪寺本 제19권 제8장의 板首題는 “大寶積經第十九卷 第八張 龍字号”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의 배열위치 간격 등이 趙城藏本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이 제19권 제8장의 경우 初雕藏本이 開寶藏本을 板首題까지 그대로 飜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趙城藏本の 缺卷으로 인해 一致 여부는 미상이지만, 初雕藏 南禪寺本 제18권 제2장, 제41권 제6장·제25장, 제46권 제18장·제19장의 板首題도 개보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

⑤ 大寶積經 再雕藏本 제19권 제16장 제17행 “綿足”(『고려대장경』 6冊, p.149의 中段) 사이에 趙城藏本에는 “枕” 1字가 修訂 補入되어 있다(『중화대장경』 8冊, p.565의 中段 제17행). 이 제17행의 字數는 再雕藏本の 경우 14字이고, 趙城藏本の 경우 15字이다. 그런데 初雕藏本에는 再雕藏本과 동일하게 趙城藏本の 修訂 補入字 “枕” 1字는 없지만, “綿足” 가운데 “綿”이 “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원래 開寶藏 初本에는 再雕藏本과 같이 “綿足”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趙城藏本の 저본인 開寶藏 修訂本에서 “綿枕足”으로 수정된 것이고, 初雕藏本에서는 “綿足”이 “枕足”으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단 初雕藏本에서의 수정이 初雕藏本이 板刻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판각된 후에 補刻된 것인지는 미상이다. 한편 初雕藏本에서 補刻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初雕藏本이 板刻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참고로 重熙 11年(1042)에 石刻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8冊, p.112의 제13행)은 趙城藏本과 동일하고, 기타 大藏經本(資福藏本, 積砂藏本, 普寧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淸藏本)은 再雕藏本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8冊, p.568의 下段 제1행).

⑥ 初雕藏本, 再雕藏本の 底本은 開寶藏 初本으로 판단된다.

⑦ 初雕藏本の 修訂字가 再雕藏本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볼 때 再雕藏本은 初雕藏本の 飜刻本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7) 이 開寶藏本 大方等大集經 卷43(上海圖書館所藏本)의 卷末에는 刊記는 없이 大觀二年(1108)의 印出記만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印出記는 卷末인 제40장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印出記는 별도의 종이에 기재된 것으로 卷末인 제40장 다음에 이어 붙여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大觀二年(1108)의 印出記는 大方等大集經 卷43의 印出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8) 이 大方等大集經 卷43에 있어서 開寶藏本(上海圖書館所藏本), 趙城藏本(國家圖書館所藏本), 再雕藏本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다소의 文字異同이 발견된다. 특히 제11행의 경우 개보장본 제43권 제17장 제9행 제7자 “滿”字 다음에 조성장본에는 “遍”이 보임되어 이 제9행의 字數가 15字로 되어 있다. 제조장본은 개보장본과 동일하게 이 “遍”字가 보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원래 개보장 초본에는 “滿”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데, 개보장 수정본에서 “遍”字가 보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성장본의 경우는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복각되었기 때문에 이 보입자가 반영되어 있고, 제조장본의 경우는 개보장 초본을 저본으로 복각되었기 때문에 이 보입자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자이동에 의거하여 볼 때, 大方等大集經 卷43에 있어서 開寶藏本の 板本은 開寶藏 初本이고, 趙城藏本の 底本은 開寶藏 修訂本이며, 再雕藏本の 底本은 開寶藏 初本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보장 수정본에서 수정되어 조성장본에 반영되어 있는 수정자(제2, 3, 6, 10행)들은 제조장본에도 수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 제조장본에는 독자적인 수정(제1, 4, 5, 7, 8, 9, 12, 13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高麗藏(初雕藏·再雕藏)의 底本에 대한 一考

| 大方等大集經 卷第四十三 文字異同 對校表 |     |     |     |     |     |     |     |     |     |     |     |     |     |
|-----------------------|-----|-----|-----|-----|-----|-----|-----|-----|-----|-----|-----|-----|-----|
| 項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冊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面                     | 516 | 516 | 516 | 517 | 519 | 520 | 521 | 521 | 521 | 521 | 521 | 521 | 523 |
| 行                     | 中7  | 中9  | 下10 | 下8  | 上19 | 上8  | 上10 | 上15 | 上19 | 中10 | 中9  | 中16 | 中10 |
| 字                     | 6   | 13  | 1   | 11  | 14  | 10  | 4   |     | 12  | 14  | 7   | 5   | 9   |
| 開寶                    | 王   | 護   | 守   | 家   | 共   | 皆   | 持   | 日日  | 禪   | 空   | 遍   | 德   | 觀   |
| 趙城                    | 王   | 諸   | 守護  | 家   | 共   | 不   | 持   | 日日  | 禪   | 虛空  | 遍滿  | 福得  | 觀   |
| 再雕                    | 主   | 諸   | 守護  | 寂   | 歸   | 不   | 於   | 習   | 種   | 虛空  | 遍   | 福德  | 親   |

“冊·面·行·字”는 『中華大藏經』의 冊, 面, 行, 字數임

- 참고 9) ① 이 大方等大集經은 再雕藏本, 趙城藏本만이 60卷本이고, 房山石經本, 資福藏本, 磧砂藏本, 普寧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 등은 30卷本이다. 한편 30卷本の 내용은 再雕藏本, 趙城藏本の 제1권부터 제26권까지와 제31권부터 제33권까지의 내용에 해당되는데, 30卷本 各卷의 선후 차례 및 各卷의 시작과 끝이 再雕藏本, 趙城藏本과 차이가 있다. 또한 30卷本 가운데서도 房山石經本과 기타 大藏經本은 各卷의 시작과 끝이 일치하지 않다(『중화대장경』 10冊, p.12의 中段 제2항).
- ② 이 大方等大集經에서 趙城藏本の 修訂 補入字 “不失” 2字(『중화대장경』 10冊, p.9의 下段 제22행)가 初雕藏 南禪寺本, 再雕藏本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 ③ 大方等大集經에서 趙城藏本の 修訂 潤文字 “生”字(『중화대장경』 10冊, p.1의 下段 제17행 제3자)가 初雕藏 南禪寺本, 再雕藏本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開寶藏 初本 원래의 문자인 “光”으로 되어 있다(『고려대장경』 7冊, p.1의 中段 제17행 제3자). 단 再雕藏本에는 이 “光”字 아래에 “丹云生”이라는 契丹藏本과의 對校 내용이 註記되어 있다.
- ④ 初雕藏 南禪寺本, 再雕藏本の 底本은 開寶藏 初本으로 판단된다.
- 참고 10) 이 大方等大集經 卷43의 趙城藏本은 중국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지만 殘缺이 심하여 『中華大藏經』에서는 趙城藏本 대신에 開寶藏本(上海圖書館所藏本)을 영인 수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大方等大集經 卷43의 趙城藏本을 實査하여 활용하였다.
- 참고 11) 開寶藏本 妙法蓮華經 제7권(山西省高平縣博物館所藏本)에는 千字文 函次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中國의 方廣鎬 先生은 2001년 筆者에게 “開寶藏이 開寶 4년(971) 처음 판각될 때에는 底本인 寫本 大藏經本(이 寫本大藏經에는 千字文 字號가 經典 内部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經帙 外部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을 따라 경전 내부에는 미처 千字文 字號가 기재되지 못한 상태로 板刻되었고, 開寶 5년(972)에 와서 비로소 經典 内部에 千字文 字號가 기재되어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趙城藏本과 再雕藏本の 千字文 函次는 鳴(129)函이다.
- 참고 12) ① 현존하고 있는 開寶藏本 妙法蓮華經 제7권(山西省高平縣博物館所藏本)은 “趙城藏本, 再雕藏本”의 底本인 開寶藏本과는 다른 계통의 판본이다. 開寶藏本과 趙城藏本, 再雕藏本을 대조해 보면, 내용은 일치하지만 板의 생김새(글자의 자형, 배열, 위치 등)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자형에 있어서 “所”, “悉”, “藏”, “嚴”, “於”, “修”, “饒”, “來”, “藐”, “照”, “無”, “安”, “慢”, “求”, “提”, “寫”, “趣”, “尼”字 등에 있어서 “開寶藏本”의 경우 거의 대부분 正字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들 글자들이 “趙城藏本, 再雕藏本”에는 俗字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明”, “冠”字의 경우 “開寶藏本”에는 俗字로 기재되어 있지만, “趙城藏本, 再雕藏本”에는 正字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萬”字의 경우 “開寶藏本”과 “趙城藏本·再雕藏本”에는 서로 다른 俗字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 또한 “趙城藏本, 再雕藏本”의 “教誡”(『중화대장경』 15冊, p.593의 下段 제9행 및 『고려대장경』 9冊, p.798의 中段 제9행)가 “開寶藏本”에는 “教戒”로 되어 있다(“誡”와 “戒”는 同字임). 그리고 “趙城藏本, 再雕藏本”의 “嫉妬”(『중화대장경』 15冊, p.595의 中段 제7행 및 『고려대장경』 9冊, p.800의 上段 제9행)가 “開寶藏本”에는 “嫉妬”로 되어 있다(“妬”는 “妬”字와 유사하게 생긴 “妬”의 同字인 “妬”로부터 기인된 “妬”의 誤字로 판단된다. 한편 隋唐 代 石刻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1冊, p.76의 제3행)에도 “嫉妬”로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거하면, 현존하고 있는 開寶藏本 妙法蓮華經 제7권(山西省高平縣博物館所藏本)은 “趙城藏本, 再雕藏本”의 底本인 開寶藏本과는 다른 계통의 판본이고, 이들 開寶藏本の 底本이 되었던 寫本 大藏經本도 동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妙法蓮華經 제7권(총 29張)에 있어서 趙城藏本과 再雕藏本을 대조해 보면,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4장과 제9장부터 제12장까지의 4장 등 총 8장을 제외한 나머지 21장 전부의 내용과 板의 생김새(글자의 자형, 배열, 위치 등)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은 동일 계통의 開寶藏本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하지 않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4장과 제9장부터 제12장까지의 4장 중 8장은 趙城藏本(혹은 底本이 되었던 開寶藏本)의 補刻板으로 판단된다(再雕藏本은 이 8장과 나머지 21장에 있어서 자형 및 板의 風格이 동일한 반면에 조성장본은 전혀 다르다).

③ 開寶藏本 妙法蓮華經 제7권의 卷末에는 開寶 4年(971)의 刊記 및 熙寧 4年(1071)과 大觀 2年(1108)의 印出記가 있다. 따라서 이 開寶藏本 妙法蓮華經 제7권은 開寶 4年(971)에 板刻되었고, 최종적으로 大觀 2年(1108) 이후에 印出된 板本으로 판단된다.

④ 開寶藏本, 趙城藏本, 再雕藏本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文字異同이 있다. 開寶藏本 妙法蓮華經 제7권 제27장 제11행에는 “以神通力故守護是經”으로 되어 있다. 재조장본도 이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려대장경』 9冊, p.799의 下段 제11행). 반면 조성장본에는 “以神通力□守護是經”(신동력으로써 이 경전을 수호하여)으로 되어 있다(조성장본의 경우는 개보장본과 재조장본의 자리에 있는 “故”가 삭제된 상태로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妙法蓮華經 제7권 제27장 제18행에는 “以神通力守護”의 용례가 보인다. 따라서 내용이나 용례에 의거하여 볼 때 “以神通力故守護是經” 가운데 “故”字는 잘못 더 들어 있는 衍字로 판단된다.

참고로 敦煌寫本(國家圖書館所藏本 <敦煌遺書 0011>)에는 開寶藏本과 동일하게 이 “以神通力故守護是經”으로 되어 있지만, 隋唐 때 石刻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1冊, p.76의 제3행)과 貞元 5年(789)에 石刻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3冊, p.353의 左段 제11행)에는 “以神通力守護是經”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에 의거하면, 現存 開寶藏本(山西省高平縣博物館所藏本)과 “趙城藏本, 再雕藏本”의 저본이 된 開寶藏本에는 문제의 내용의 “以神通力故守護是經”으로 되어 있었고, 이들 개보장본의 저본이 寫本 大藏經本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趙城藏本の 저본이 되었던 개보장 수정본에서는 “故”字가 수정 삭제되어 “以神通力□守護是經”으로 수정되었고, 이것이 조성장본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재조장본의 경우는 아직 수정되지 않은 개보장 초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되었기 때문에 “以神通力故守護是經”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開寶 4年(971)의 刊記 및 熙寧 4年(1071)과 大觀 2年(1108)의 印出記가 있는 開寶藏本 제7권(山西省高平縣博物館所藏本)은 開寶藏 初刻本(또는 試刻本)의 後刷本으로 판단된다. 반면 “趙城藏本, 再雕藏本”의 저본이 되었을 開寶藏本은 開寶 4年(971) 이후에 다시 板刻된 開寶藏 再刻本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 趙城藏本の 저본이 된 開寶藏本은 開寶藏 再刻 修訂本이고, 再雕藏本の 저본이 된 開寶藏本은 開寶藏 再刻 初本으로 판단된다.

참고 13) 이 妙法蓮華經 7卷은 趙城藏本에서 7권 전체에 걸쳐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再雕藏本과 다른 계통의 판본이다. 아마도 趙城藏本은 趙城藏의 간행 당시 筆寫 板刻된 것이거나 후에 筆寫 補刻된 것으로 추정된다. 혹은 開寶藏 修訂本의 상태가 趙城藏本에 전송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참고 14) 이 阿惟越致迦經 卷上에 있어서 開寶藏本(國家圖書館所藏本), 再雕藏本 사이에는 많은 文字異同이 있지만 이 문자이동이 開寶藏本과 再雕藏本 가운데 어느 판본에서 발생된 것인지의 불분명하다. 開寶藏本에서의 修訂 補入字는 없는 상태이다.

참고 15) 이 大雲經請雨品第六十四에 있어서 開寶藏本(山西省高平縣博物館所藏本) 제14장 제9행 제6자 “帝”字 다음에 趙城藏本에는 “一切”2자가 補入되어 이 제9행의 字數가 16자로 되어 있다. 재조장본은 개보장본과 동일하게 이 “遍”字가 補入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원래 “一切”2자가 開寶藏 初本에는 “帝”字 다음에 없던 것인데 開寶藏 修訂本에서 補入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성장본의 경우는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복각되었기 때문에 이 보입자가 반영되어 있고, 재조장본의 경우는 개보장 초본을 저본으로 복각되었기 때문에 이 보입자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자이동에 의거하여 볼 때, 大雲經請雨品第六十四에 있어서 開寶藏本の 板本은 開寶藏 初本이고, 趙城藏

본의 底本은 開寶藏 修訂本이며, 再雕藏本의 底本은 開寶藏 初本으로 판단된다.

참고 16)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의 제2장 제9행(실제로는 卷30의 제6장 제9행)에는 “四種神力”(“轉輪王 七寶具足 成就人中 四種神力 王四天下”(전륜왕은 칠보를 갖추고 가운데서 네 가지 신통력을 성취하여 사천하의 왕이 되었다))로 되어 있는데, 趙城藏本에는 “四禪神力”으로 되어 있어 “種”이 “禪”으로 되어 있다(『중화대장경』 32冊, p.9911의 上段 제9행). 大定 4年(1164)에 石刻된 房山石經本(『방산석경』 23冊, p.316의 下段 제20행)만이 趙城藏本과 동일하고, 初雕藏本, 再雕藏本, 資福藏本, 磧砂藏本, 普寧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은 開寶藏本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32冊, p.998의 中段 제9행).

이것은 원래 開寶藏本에 “禪”字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趙城藏本에 그대로 전승되었고, 開寶藏 國家圖書館所藏本과 初雕藏本, 再雕藏本에서는 “禪”이 “種”으로 수정된 것이다. 한편 趙城藏本 雜阿含經 卷30에는 수정 보입 및 삭제된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중화대장경』 32冊, p.990의 上段 제18행, 제24행 및 p.994의 中段 제22행) 趙城藏本은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거하면, 이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의 제2장 9행(실제로는 卷30의 제6장 제9행)의 “種”은 원래 개보장 초본과 개보장 수정본에 “禪”으로 되어 있던 것(개보장 수정본의 복각본인 趙城藏本의 “禪”에 의거하여 추정된 것임)이 개보장 재수정본에서 “種”으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의 제2장(실제로는 卷30의 제6장)은 開寶藏 再修訂本으로 추정된다.

참고 17) ① 이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은 殘本으로서 모두 10張인데, 단지 第1~3張만이 雜阿含經卷第三十의 殘片이고, 나머지 7張은 卷第三十이 아닌 다른 卷次의 殘片이다. 이들 各張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第1張은 雜阿含經 卷第三十 第1張 第1行~第4行의 내용임

第2張은 雜阿含經 卷第三十 第6張의 내용임

第3張은 雜阿含經 卷第三十 第7張 第4行~第18行의 내용임

第4張은 雜阿含經 卷第四十 第1張 第6行~第15行의 내용임

第5張은 雜阿含經 卷第四十 第3張 第15行~第23行의 내용임

第6張은 雜阿含經 卷第四十 第4張 第1行~第7行의 내용임

第7張은 雜阿含經 卷第三十五 第1張 第13行~第22行의 내용임

第8張은 雜阿含經 卷第四十四 第7張 第3行~第15行의 내용임

第9張은 聖法印經 第2張의 내용임

第10張은 刊記(“大宋開寶七年甲戌歲奉勅雕造”)와 또 다른 기록인 “入內侍省內仕黃門勾當印經院劉 惟德”의 내용임

②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의 第10張에 기재되어 있는 刊記(“大宋開寶七年甲戌歲奉勅雕造”)와 또 다른 기록(“入內侍省內仕黃門勾當印經院劉 惟德”)은 雜阿含經 卷30이 아닌 聖法印經의 卷末 내용이다.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의 第9張과 第10張 두 장은 종이의 질과 색깔이 동일한 반면 그 앞장의 종이는 다른 상태이다.

참고 18) ①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의 제8장 제2행(실제로는 卷44의 제7장 제4행)에는 “婆羅婆羅門”으로 되어 있는데, 趙城藏本에는 “婆羅婆羅門” 가운데 “婆羅” 2자가 삭제된 상태인 “婆羅□□門”으로 되어 있다(『중화대장경』 33冊, p.171의 中段 제4행). 再雕藏本에도 “婆羅婆羅門” 가운데 “婆羅” 2자가 수정 삭제되었지만 이 부분이 補寫 板刻되어 “婆羅門”으로 되어 있다(『고려대장경』 18冊, p.1149의 下段 제13행). 참고로 大定 4年(1164)에 石刻된 房山石經本은 제조장본과 동일하다(『방산석경』 23冊, p.471의 下段 제25행).

이렇게 볼 때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의 제8장(실제로는 卷44의 제7장)은 開寶藏 初本으로 추정된다(아래의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의 제8장(실제로는 卷44의 제7장)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②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의 제8장 제3행(실제로는 卷44의 제7장 제5행)에는 “婆羅”로 되어 있다. 趙城藏本은 開寶藏本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33冊, p.171의 中段 제5행). 再雕藏本의 경우는 “婆羅” 다음에 “門” 1자가 補入되어 “婆羅門”으로 수정되어 있다(『고려대장경』 18冊, p.1149의 下段 제5행). 참고로

大定 4年(1164)에 石刻된 房山石經本은 제조장본과 동일하다(『방산석경』 23冊, p.472의 上段 제2행).  
참고 19) ①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9(國家圖書館所藏本)는 殘本으로서 5張으로 되어 있는데, 이 5張도  
단지 第1張만이 雜阿含經卷第三十九의 殘片이고, 나머지 第2張~第5張은 卷第三十九가 아닌 다  
른 卷次의 殘片이다. 이들 各張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第1張은 雜阿含經 卷第三十九 第1張의 내용임

第2張은 雜阿含經 卷第三十 第8張의 내용임

第3張은 雜阿含經 卷第二十一 第2張 第1行~第13行의 내용임

第4張은 雜阿含經 卷第四十四 第5張 第4行~第21行의 내용임

第5張은 雜阿含經 卷第四十四 第4張 第3行~第15行의 내용임

②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9의 제3장 제3행 및 제5행(실제로는 卷21의 제2장 제3행 및 제5행)에는  
“不勇不沒”로 되어 있다. 趙城藏本은 開寶藏本과 동일하지만(『중화대장경』 32冊, p.875의 下段  
제3행 및 제5행), 初雕藏本은 “不涌不沒”로 수정되어 있다(“若比丘無想心三昧不涌不沒”(만약 비  
구가 무상심삼매에 들뜨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며)). 再雕藏本은 趙城藏本과 동일하게 수정되어  
있다(『고려대장경』 18冊, p.912의 上段). 참고로 大定 4年(1164)에 石刻된 房山石經本에는 “不踊  
不沒”로 되어 있고(『방산석경』 23冊, p.218의 上段 제21행 및 제23행), 磧砂藏本, 普寧藏本, 永樂南  
藏本, 徑山藏本, 清藏本 등은 初雕藏本과 동일하며, 資福藏本은 개보장본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32冊, p.885의 中段 제2행). 이것은 開寶藏本의 “勇”(용맹하다의 의미)이 初雕藏本에서 “涌”(들뜨  
다의 의미)으로 潤文 修訂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9(國家圖書館所藏本)의 제3장(실제로는 卷21의 제2장)은  
開寶藏 初本으로 추정된다.

참고 20) 이 聖法印經은 전체가 2장 분량인데 開寶藏本(國家圖書館所藏本)은 제2장 한 장의 내용만이 開寶  
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의 卷末에 이어 붙여져 있는 상태이다(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 제9장의 자리). 따라서 開寶藏本 聖法印經의 千字文 函次는 未詳이다.  
아마도 다른 大藏經本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대장경본(조성장본, 초조장본, 제조장본)  
의 函次는 若(283)函이다.

참고 21) 앞의 開寶藏本 雜阿含經 卷30(國家圖書館所藏本) 참조.

참고 22) ① 이 開寶藏本 聖法印經 제2장 제12행에는 “毀壞別離 欲滅盡”으로 되어 있는데, 初雕藏 南禪寺本에  
는 “毀壞別離 離欲滅盡”으로 되어 있다(“皆歸於盡 無常苦空 毀壞別離 離欲滅盡”(모든 것이 소멸  
[盡]로 돌아가니, 무상하고[無常], 괴롭고[苦], 없어지고[空], 부서지며[毀], 헤어지게 되니[別離], 욕  
망에 벗어나서[離欲] 멸진하게 된다[滅盡])).

조성장본(『중화대장경』 34冊, p.312의 下段 제12행)은 개보장본과 동일하고, 趙城藏本(『고려대장경』  
19冊, p.719의 中段 제12행)은 初雕藏 南禪寺本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大正 14年(860)에  
石刻된 房山石經本은 開寶藏本과 동일하고(『방산석경』 3冊, p.485 제27행), 資福藏本, 磧砂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 등은 初雕藏本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34冊, p.313의 中段 제8행).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거하면, 이것은 개보장본에서 “離” 1자가 탈락된 것인데(혹 이 “離” 1자의  
脫漏는 房山石經本에도 이 “離” 1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개보장본의 저본이 되었던 사본에서 유래된  
탈자로 추정되기도 한다), 조성장본에는 그대로 인습되었고, 초조장본과 제조장본에서는 각각 독자적  
으로 修訂 補入된 것으로 판단된다(초조장본과 제조장본에서 이 “離”字의 자형은 동일하지 않다). 초조  
장본과 제조장본에서는 이 “離” 1자의 수정 보입으로 제13행의 字數가 15자로 1자가 증가되었고, 또한  
제12행과 제13행 두 행 전체가 저본인 개보장본과 다른 글자 배열로 수정되었다.

② 이 開寶藏本 聖法印經 제2장 제16행에는 “名由聖法印”으로 되어 있는데, 初雕藏 南禪寺本에는  
“名曰聖法印”으로 되어 있다(“名曰聖法印”(이름하여 ‘성법인’이라 한다)).

조성장본(『중화대장경』 34冊, p.312의 下段 제16행)은 개보장본과 동일하지만, 趙城藏本(『고려대장경』  
19冊, p.719의 中段 제16행)은 “名曰由聖法印”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大正 14年(860)에 石刻된 房山石  
經本(『방산석경』 3冊, p.485 제27행), 資福藏本, 磧砂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 등은 初雕  
藏本과 동일하다(『중화대장경』 34冊, p.313의 中段 제9행).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거하면, 개보장본의 “由”는 “曰”의 誤字인데, 조성장본에는 그대로 인쇄되었고, 조조장본에서는 誤字인 “由”가 “曰”로 수정되었으며, 재조장본에서는 “曰” 1자가 修訂 補入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조장본에서는 이 “曰” 1자의 수정 보입으로 제18행의 字數가 1자가 증가되었고, 또한 제16행~제13행 세 행 전체가 저본인 개보장본과 다른 글자 배열로 수정되었다.

참고 23) ① 開寶藏本 佛本行集經 卷19(南禪寺所藏本) 제1장 제23행 제9자 “特”字(이 글자는 開寶藏本에서 “特”字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特”字와 비슷하게 생긴 “持”의 異體字(秦公輯, 『碑別字新編』, 文物出版社, 1985, p.91)로 기재된 것임)가 趙城藏本(『중화대장경』, 35冊, p.738의 中段 제23행)과 再雕藏本(『고려대장경』, 20冊, p.709의 下段 제23행)에는 正字인 “持”로 수정되어 있다. 한편 敦煌寫本(國家圖書館所藏本 <敦煌遺書 0321>)에도 開寶藏本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다른 한편 磧砂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 등에는 잘못 “特”字로 되어 있다(『중화대장경』, 35冊, p.745의 下段 제5항).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거하면, 이것은 개보장 조본의 “特”字와 비슷하게 생긴 “持”의 異體字가 개보장 수정본에서 “持”의 正字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開寶藏本 佛本行集經 卷19(南禪寺所藏本) 제21장 제9행의 “棄捨” 2자가 趙城藏本(『중화대장경』, 35冊, p.745의 中段 제9행)에는 “棄而” 2자로 되어 있고, 再雕藏本(『고려대장경』, 20冊, p.716의 上段 제9행), 敦煌寫本(國家圖書館所藏本 <敦煌遺書 0321>), 磧砂藏本, 普寧藏本, 永樂南藏本, 徑山藏本, 清藏本 등(『중화대장경』, 35冊, p.745의 下段 제5항)에는 “棄捨而” 3자로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거하면, 이것은 본래 “棄捨而” 3자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개보장 조본에서 “棄捨” 2자로 잘못 되었고, 개보장 수정본에서 “棄而” 2자로 수정되었으며, 다시 재조장본에서 본래의 내용인 “棄捨而” 3자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24) ① 이 開寶藏本 十誦律 卷46(書道博物館所藏本)에는 臨時方便의 修訂(添入·補刻)된 내용이 많은데, 添入·補刻된 문자의 해당 行은 15字 또는 16字로 되어 있으며 人爲의 添入·補刻된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따라서 開寶藏本 十誦律 卷46은 開寶藏 修訂本으로 판단된다. ② 한편 再雕藏本에는 開寶藏 修訂本에서 臨時方便의 修訂(補刻 添入)된 문자들이 補寫·板刻되어 반영되어 있다.

참고 25) ① 이 十誦律의 趙城藏本 제50권 제21장 제12행의 修訂 補入字 “十歲比丘” 4字(『중화대장경』, 37冊, p.932의 上段)가 初雕藏 南禪寺本, 再雕藏本(『고려대장경』, 21冊, p.1019의 下段 제13행)에는 수용되어 있지 않다.

② 이 十誦律의 再雕藏本 제50권 제17행 제6자 “竟”字(『고려대장경』, 21冊, p.1019의 下段)가 避諱 缺劃되어 있는데, 初雕藏 南禪寺本(제51권 제16행 제6자)에는 “竟”字가 避諱缺劃字가 아닌 온전한 글자로 되어 있다.

참고 26) ① 開寶藏本 御製秘藏詮 제13권(하버드大學所藏本)은 卷首가 缺失되어 卷首에 千字文 函次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장의 板首에 卷次와 張次만 기재되어 있고, 千字文 函次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래 개보장본 御製秘藏詮에는 千字文 函次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趙城藏本 御製秘藏詮 제13권은 결본이고, 재조장본과 조조장본 御製秘藏詮 제13권의 函次는 駕(518)函이다. 한편 御製秘藏詮 제14권의 경우 趙城藏本の 函次는 嶽(611)函이고, 재조장본과 조조장본의 函次는 駕(518)函이다.

참고 27) 開寶藏本 御製秘藏詮 제13권(하버드大學所藏本)의 文字異同은 初雕藏本과 일치하고, 再雕藏本과는 동일하지 않는데, 開寶藏本과 初雕藏本の 文字異同은 開寶藏 修訂本の 수정된 문자로 판단되는 것이다. 한편 再雕藏本の 文字異同은 再雕藏本 자체에서 수정된 것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가 수정되지 않은 開寶藏 原來的 文字로 판단되는 것이다(『柳富鉉, 『御製秘藏詮』, 大藏經 板本の 文字異同과 校勘』, 『書誌學研究』, 47집, 書誌學會, 2010, p.91).

참고 28) 御製秘藏詮 20卷에 있어서 현존하고 있는 모든 初雕藏本の 文字異同은 거의 대부분 開寶藏 修訂本の 覆刻본인 趙城藏本과 일치하는 開寶藏의 修訂된 文字이다. 그리고 再雕藏本の 文字異同은 再雕藏本 자체에서 수정된 것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가 수정되지 않은 開寶藏 原來的 文字이다. 이것은 高麗大藏經 가운데 御製秘藏詮 20卷의 경우 初雕藏本은 開寶藏 修訂本을 底本으로 해서 覆刻된 것이고, 再雕藏本은 開寶藏 初本을 바탕으로 해서 복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表 2> 開寶藏 趙城藏 初雕藏 再雕藏的 雜阿含經 제21권 제2장 對照表

|                                                                                                                                                                                                                                                                                                                                          |                                                                                                                                                                                                                                                                                                                                          |                                                                                                                                                                                                                                                                                                                                          |
|------------------------------------------------------------------------------------------------------------------------------------------------------------------------------------------------------------------------------------------------------------------------------------------------------------------------------------------|------------------------------------------------------------------------------------------------------------------------------------------------------------------------------------------------------------------------------------------------------------------------------------------------------------------------------------------|------------------------------------------------------------------------------------------------------------------------------------------------------------------------------------------------------------------------------------------------------------------------------------------------------------------------------------------|
| <p>想於有法而不覺知尊者迦摩比丘復問尊者阿難若比丘無想心三昧不湧不沒解脫已住住已解脫世尊說此是何果何功德尊者阿難語迦摩比丘言若比丘無想心三昧不湧不沒解脫已住住已解脫世尊說此是智果智功德時二正士共論議已歡喜隨喜各從坐起去</p> <p>如是我聞一時佛住俱睺彌國瞿師羅園今時尊者阿難亦在彼住時尊者阿難告諸比丘若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當善哉慰勞問評或求以四道何等為四若比丘比丘且坐作如是住心善住心居住心調伏心止觀一心等受分別於法量度修習多修習已得斷諸使若有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則如是喜我慰勞或求名說初道復次比丘比丘且正坐思惟於法選擇思量住心善住居住調伏止觀一心等受如是正向多住得離諸使若有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當如是喜我慰勞或求名第二說道復次比丘比丘</p> | <p>想於有法而不覺知尊者迦摩比丘復問尊者阿難若比丘無想心三昧不湧不沒解脫已住住已解脫世尊說此是何果何功德尊者阿難語迦摩比丘言若比丘無想心三昧不湧不沒解脫已住住已解脫世尊說此是智果智功德時二正士共論議已歡喜隨喜各從坐起去</p> <p>如是我聞一時佛住俱睺彌國瞿師羅園今時尊者阿難亦在彼住時尊者阿難告諸比丘若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當善哉慰勞問評或求以四道何等為四若比丘比丘且坐作如是住心善住心居住心調伏心止觀一心等受分別於法量度修習多修習已得斷諸使若有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則如是喜我慰勞或求名說初道復次比丘比丘且正坐思惟於法選擇思量住心善住居住調伏止觀一心等受如是正向多住得離諸使若有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當如是喜我慰勞或求名第二說道復次比丘比丘</p> | <p>想於有法而不覺知尊者迦摩比丘復問尊者阿難若比丘無想心三昧不湧不沒解脫已住住已解脫世尊說此是何果何功德尊者阿難語迦摩比丘言若比丘無想心三昧不湧不沒解脫已住住已解脫世尊說此是智果智功德時二正士共論議已歡喜隨喜各從坐起去</p> <p>如是我聞一時佛住俱睺彌國瞿師羅園今時尊者阿難亦在彼住時尊者阿難告諸比丘若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當善哉慰勞問評或求以四道何等為四若比丘比丘且坐作如是住心善住心居住心調伏心止觀一心等受分別於法量度修習多修習已得斷諸使若有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則如是喜我慰勞或求名說初道復次比丘比丘且正坐思惟於法選擇思量住心善住居住調伏止觀一心等受如是正向多住得離諸使若有比丘比丘且於我前自說我當如是喜我慰勞或求名第二說道復次比丘比丘</p> |
|------------------------------------------------------------------------------------------------------------------------------------------------------------------------------------------------------------------------------------------------------------------------------------------------------------------------------------------|------------------------------------------------------------------------------------------------------------------------------------------------------------------------------------------------------------------------------------------------------------------------------------------------------------------------------------------|------------------------------------------------------------------------------------------------------------------------------------------------------------------------------------------------------------------------------------------------------------------------------------------------------------------------------------------|

<表 3> 開寶藏 趙城藏 初雕藏 再雕藏의 佛說聖法印經 제2장 對照表

|                                                                                                                                                                                                                                                                                                                                                                                                                                                                                                                                                                                                                                                                                                                          |                                                                                                                                                                                                                                                                                                                                                                                                                                                                                                                                                                                                                                                                                                                                                      |                                                                                                                                                                                                                                                                                                                                                                                                                                                                                                                                                                                                                                                                                                                                                      |                                                                                                                                                                                                                                                                                                                                                                                                                                                                                                                                                                                                                                                                                                                                                      |
|--------------------------------------------------------------------------------------------------------------------------------------------------------------------------------------------------------------------------------------------------------------------------------------------------------------------------------------------------------------------------------------------------------------------------------------------------------------------------------------------------------------------------------------------------------------------------------------------------------------------------------------------------------------------------------------------------------------------------|------------------------------------------------------------------------------------------------------------------------------------------------------------------------------------------------------------------------------------------------------------------------------------------------------------------------------------------------------------------------------------------------------------------------------------------------------------------------------------------------------------------------------------------------------------------------------------------------------------------------------------------------------------------------------------------------------------------------------------------------------|------------------------------------------------------------------------------------------------------------------------------------------------------------------------------------------------------------------------------------------------------------------------------------------------------------------------------------------------------------------------------------------------------------------------------------------------------------------------------------------------------------------------------------------------------------------------------------------------------------------------------------------------------------------------------------------------------------------------------------------------------|------------------------------------------------------------------------------------------------------------------------------------------------------------------------------------------------------------------------------------------------------------------------------------------------------------------------------------------------------------------------------------------------------------------------------------------------------------------------------------------------------------------------------------------------------------------------------------------------------------------------------------------------------------------------------------------------------------------------------------------------------|
| <p>             憍憍至於禪定清淨見也其心續存<br/>             柔順之定彼則見除所有貪煙眼志<br/>             愚癡是故名曰無欲之定尚未得除<br/>             自大憍憍至於禪定清淨見也心自<br/>             念言吾我起滅從何所興思惟解知<br/>             其吾我者所因習味分別諸識皆從<br/>             因緣而致此業徒是因緣致有神識<br/>             復自念言此諸因緣為有常乎為無<br/>             常耶復自念言因緣所合致神識者<br/>             此皆無常元有根本此神識者依倚<br/>             無常而有妄想故有緣起十二因也<br/>             皆歸於盡元常苦空毀壞別離離欲<br/>             盡曉了是者乃知無本得至降伏消<br/>             一切起得入道行是乃速致除於自<br/>             大無憍放逸禪定之業現清淨行是<br/>             則名曰聖法印清淨之業從始至終<br/>             究竟本末佛說如是諸比丘聞莫不<br/>             歡喜作禮而去<br/>             元康四年十二月二十五日支普<br/>             薩沙門曇法護於酒泉演說此經弟<br/>             子竺法首筆受今此深法普流十方<br/>             大衆常光         </p> | <p>             佛說聖法印經 卷第二<br/>             憍憍至於禪定清淨見也其心續存<br/>             柔順之定彼則見除所有貪煙眼志<br/>             愚癡是故名曰無欲之定尚未得除<br/>             自大憍憍至於禪定清淨見也心自<br/>             念言吾我起滅從何所興思惟解知<br/>             其吾我者所因習味分別諸識皆從<br/>             因緣而致此業徒是因緣致有神識<br/>             復自念言此諸因緣為有常乎為無<br/>             常耶復自念言因緣所合致神識者<br/>             此皆無常元有根本此神識者依倚<br/>             無常而有妄想故有緣起十二因也<br/>             皆歸於盡元常苦空毀壞別離離欲<br/>             盡曉了是者乃知無本得至降伏消<br/>             一切起得入道行是乃速致除於自<br/>             大無憍放逸禪定之業現清淨行是<br/>             則名曰聖法印清淨之業從始至終<br/>             究竟本末佛說如是諸比丘聞莫不<br/>             歡喜作禮而去<br/>             元康四年十二月二十五日支普<br/>             薩沙門曇法護於酒泉演說此經弟<br/>             子竺法首筆受今此深法普流十方<br/>             大衆常光         </p> | <p>             佛說聖法印經 卷第二<br/>             憍憍至於禪定清淨見也其心續存<br/>             柔順之定彼則見除所有貪煙眼志<br/>             愚癡是故名曰無欲之定尚未得除<br/>             自大憍憍至於禪定清淨見也心自<br/>             念言吾我起滅從何所興思惟解知<br/>             其吾我者所因習味分別諸識皆從<br/>             因緣而致此業徒是因緣致有神識<br/>             復自念言此諸因緣為有常乎為無<br/>             常耶復自念言因緣所合致神識者<br/>             此皆無常元有根本此神識者依倚<br/>             無常而有妄想故有緣起十二因也<br/>             皆歸於盡元常苦空毀壞別離離欲<br/>             盡曉了是者乃知無本得至降伏消<br/>             一切起得入道行是乃速致除於自<br/>             大無憍放逸禪定之業現清淨行是<br/>             則名曰聖法印清淨之業從始至終<br/>             究竟本末佛說如是諸比丘聞莫不<br/>             歡喜作禮而去<br/>             元康四年十二月二十五日支普<br/>             薩沙門曇法護於酒泉演說此經弟<br/>             子竺法首筆受今此深法普流十方<br/>             大衆常光         </p> | <p>             佛說聖法印經 卷第二<br/>             憍憍至於禪定清淨見也其心續存<br/>             柔順之定彼則見除所有貪煙眼志<br/>             愚癡是故名曰無欲之定尚未得除<br/>             自大憍憍至於禪定清淨見也心自<br/>             念言吾我起滅從何所興思惟解知<br/>             其吾我者所因習味分別諸識皆從<br/>             因緣而致此業徒是因緣致有神識<br/>             復自念言此諸因緣為有常乎為無<br/>             常耶復自念言因緣所合致神識者<br/>             此皆無常元有根本此神識者依倚<br/>             無常而有妄想故有緣起十二因也<br/>             皆歸於盡元常苦空毀壞別離離欲<br/>             盡曉了是者乃知無本得至降伏消<br/>             一切起得入道行是乃速致除於自<br/>             大無憍放逸禪定之業現清淨行是<br/>             則名曰聖法印清淨之業從始至終<br/>             究竟本末佛說如是諸比丘聞莫不<br/>             歡喜作禮而去<br/>             元康四年十二月二十五日支普<br/>             薩沙門曇法護於酒泉演說此經弟<br/>             子竺法首筆受今此深法普流十方<br/>             大衆常光         </p>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表 1> “開寶藏 現存本の 板本 및 趙城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の 底本”, <表 2> “開寶藏 趙城藏 初雕藏 再雕藏의 雜阿含經 제21권 제2장 對照表”, <表 3> “開寶藏 趙城藏 初雕藏 再雕藏의 佛說聖法印經 제2장 對照表”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과 再雕藏은 기본적으로 開寶藏의 修訂 覆刻本임이 확인된다 하겠다.

### 3. 校正別錄에 나타난 再雕藏의 底本

교정별록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4> “校正別錄의 유형별 교정 내용”과 같다.

<表 4> 校正別錄의 유형별 교정 내용

| 유형 | 교정 내용                                      | 건수 | 참고       |
|----|--------------------------------------------|----|----------|
| A  | 國丹本, 또는 二本, 東北二本, 他本에 의거 宋本을 교정            | 23 | 1), 2)   |
| B  | 國宋本을 취함                                    | 2  | 3), 4)   |
| C  | 문제집 지적, 書名・譯者名 수정, 國宋本・丹本을 존속시킴, 重編의 원인 분석 | 18 | 5)       |
| D  | 宋丹本 가운데 丹本을 不取함                            | 1  | 6), 7)   |
| E  | 三國本の 闕文을 本論에 의거 補入                         | 1  | 8), 9)   |
| F  | 丹本에 의거 國宋本을 교정                             | 12 | 10), 11) |
| G  | 明度經에 의거 國宋本을 교정                            | 1  | 12)      |
| H  | 國宋本을 丹本으로 대체                               | 5  | 13)      |
| I  | 宋本에 없는 것을 丹本에 의거 編入                        | 3  | 14)      |
| J  | 重出, 重編 이유로 國宋本을 삭제, 看覽藏經에 無益하여 삭제          | 4  | 15)      |
| K  | 宋本을 國丹本으로 대체                               | 1  | 16)      |
| L  | 國本에 의거 宋丹本 혹은 宋本을 수정(脫文 補入 등)              | 2  | 17)      |
| M  | 函次移動                                       | 1  | 18)      |
| N  | 丹本の 誤謬를 지적(闕文, 錯亂)                         | 5  | 19)      |
| O  | 國後本・丹本에 의거 國前本・宋本을 교정                      | 1  | 20)      |
| P  | 出處未詳의 經典을 編入                               | 1  | 21)      |
| Q  | 校正別錄을 編入                                   | 1  | 22)      |
| R  | 丹本에 의거 國本을 교정                              | 1  | 23)      |
| 18 |                                            | 78 |          |

참고 1) “A. 國丹本(또는 二本, 東北二本, 他本)에 의해 宋本을 교정한다”는 것은 國丹本(또는 二本, 東北二本, 他本)에 의해 宋本을 수정하여 이를 복각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例證으로 「조성장」과 「재조장」의 “服函의 決定毗尼經”의 第2張을 대조해 보면, 「개보장」의 복각본인 「조성장」과 「재조장」이 전체적으로는 모두 일치하고 한 곳만 다르게 나타난다(제2장, 제14행, 10·11字인 “妙意”가 「재조장」에는 “妙意<sup>丹云</sup> 妙音”인데, 「조성장」에는 “妙音”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決定毗尼經의 제2장이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 경전에 해당하는 「재조장」의 저본이 된 宋本과 「趙城藏」의 저본인 「개보장」과 같은 계통의 「개보장」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재조장」은 「조성장」의 저본과 같은 계통의 「개보장」을 복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재조장」 決定毗尼經의 제2장, 제14행, 10·11字인 “妙意” 아래에 “<sup>丹云</sup> 妙音”이란 註釋이 달려 있는 것은 물론 守其法師가 丹本에 의거해서 宋本에 더해놓은 것으로 바로 수기법사에 의해서 수정된 부분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조성장」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 “妙意”가 이미 “妙音”으로 수정되어 있다. 이것은 원래 “妙意”로 되어 있던 것이 “妙音”으로 수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재조장」의 저본인 송본에는 “妙意”로 되어 있다가 「조성장」의 저본인 송본에서는 “妙音”으로 수정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조성장」의 저본이 된 송본은 「개보장」의 수정본이고, 「재조장」의 저본이 된 송본은 「개보장」 가운데 그 初本이 아닌가 한다.

- 참고 2)
- |                   |                             |
|-------------------|-----------------------------|
| 1. 服函 決定毗尼經       | 33. 川函 雜阿含經 第三十四卷           |
| 5. 伐函 般舟三昧經 三卷    | 38. 暎函 中本起經 卷下              |
| 6. 鳳函 正法華經 十卷     | 53. 入函 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一卷       |
| 7. 王函 普曜經八卷 第二卷   | 54. 諸函 鼻奈耶 十卷               |
| 20. 作函 大智度論 第四卷   | 56. 子函 阿毗曇八揅度論 卷第八          |
| 21. 聖函 大智度論 第十四卷  | 58. 同函 集異門足論 卷第十四(A·F에 해당됨) |
| 22. 建函 大智度論 第三十一卷 | 60. 慈函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十四       |
| 23. 谷函 大寶積經論 四卷   | 63. 廉函 大毗婆沙論 卷第一百九          |
| 25. 當函 決定藏論       | 64. 逸函 大毗婆沙論 卷第一百九十九        |
| 26. 竭函 寶性論 第二卷    | 65. 逸函 大毗婆沙論 卷第二百           |
| 27. 力函 轉識論        |                             |

참고 3) “B. 國宋本을 취한다”는 것은 國宋本을 복각한 것이다. 단, 이같이 國宋本을 지칭하는 경우 板刻時에는 國宋本 가운데 어느 하나를 底本으로 사용했을 것인데, 송본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본을 복각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 국본은 이전에 송본을 복각한 국본인 셈이다(이하 동일함). 왜냐하면 이 경우 즉 “B. 國宋本을 취함”의 유형에 해당되는 「재조장」 역시 「조성장」과 行字數, 字形, 글자의 크기, 글자 사이의 간격 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 참고 4)
- |            |           |
|------------|-----------|
| 2. 服函 須摩提經 | 3. 推函 大集經 |
|------------|-----------|
- 참고 5)
- |                    |                     |
|--------------------|---------------------|
| 9. 鞠函 月燈三昧經 一卷     | 36. 取函 起世因本經        |
| 10. 養函 佛說彌勒下生經     | 41. 若函 舍衛國王十夢經      |
| 12. 敢函 佛說申日經       | 44. 甚函 大安般守意經 二卷    |
| 14. 知函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  | 51. 外函 沙彌尼離戒文       |
| 17. 罔函 賢劫經 八卷      | 57. 孔函 發智論 第八卷      |
| 18. 詩函 蘇悉地羯羅供養法 三卷 | 59. 分函 阿毗曇毗婆沙論 卷第十四 |

28. 命函 法界無差別論 一卷      66. 渭函 分別功德論 第五卷  
29. 命函 國本宋本 法界無差別論      70. 盡函 金七十論 三卷  
35. 澄函 起世經      78. 寧晉楚函 佛名經 三十卷
- 참고 6) “D. 宋丹本 가운데 丹本을 不取한다”는 것은 宋丹本 가운데 宋本을 복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는 “必函 須眞天子經”을 든다. 이 「재조장」의 眞眞天子經이 「조성장」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송본을 복각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 참고 7) 16. 必函 須眞天子經 宋四卷 丹三卷(D·N에 해당됨)
- 참고 8) “E. 三國本の 闕文(‘闕文’은 ‘攝大乘論’을 풀어 놓은 ‘攝大乘論釋’에서 발생된 결문을 뜻하는 것이다)을 本論(‘本論’은 ‘攝大乘論’을 지칭하는 것이다)에 의거 補入한다”는 것은 三國本の ‘攝大乘論釋’ 卷第九에서 발생된 闕文을 本論인 ‘攝大乘論’ 中卷에 의거해서 宋本에 補入하여 복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는 “曰函 攝大乘論釋 卷第九”의 제9장을 든다. 「교정별록」의 교감기에서는 攝大乘論釋 卷第九 第9장 13행에서의 闕文 25자를 攝大乘論 中卷 第24幅(이 내용은 필자가 확인한 바로 「재조장」의 ‘攝大乘論’에는 제22장에 있다)에 의거하여 보입한다고 하였는데, 「재조장」과 「조성장」을 대조한 바 과연 그대로이다.
- 참고 9) 24. 曰函 攝大乘論釋 卷第九
- 참고 10) “F. 丹本에 의거 國宋本을 교정한다”는 것은 丹本에 의거해서 國宋本(정확히 말하면 宋本)을 수정하여 복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는 “同函 集異門足論 卷第十四”의 제12장~제14장을 든다. 「교정별록」의 교감기에서는 國宋本 集異門足論 卷第十四 第12쪽 6행(필자가 확인한 바로 「재조장」의 ‘集異門足論’ 卷第十四에는 제18행에 해당한다) 이하의 闕文 35행을 丹本에 의거하여 보입한다고 하였는데, 「재조장」과 「조성장」을 대조한 바 또한 그대로이다. 즉 「재조장」의 제12장 18행부터 제14장 6행까지는 丹本에 의거해 補入된 부분이고(補入된 부분은 당연히 「재조장」의 雕造時 새로 등재본을 마련해서 판각된 것이다), 제12장의 17행까지와 제14장의 7행 이하의 내용은 송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이다(복각된 부분은 송본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 참고 11) 30. 薄函 中阿含經 卷第十一      50. 隨函 摩訶僧祇比丘尼戒本  
31. 薄函 中阿含經 卷第十五      52. 傳函 四分比丘尼羯磨 一卷  
32. 松函 雜阿含經 第四卷      55. 子函 阿毗曇八捷度論 卷第六  
34. 不函 別譯雜阿含經      58. 同函 集異門足論 卷第十四(A·F에 해당됨)  
47. 攝函 十誦律 卷第五      61. 惻函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三十二  
48. 樂函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毗那耶 62. 弗函 大毗婆沙論 卷第六十五卷第二十
- 참고 12) 4. 虞函 大集經第五十九卷
- 참고 13) 8. 鞠函 月燈三昧經 一卷 宋沙門先公譯      43. 籍函 本事經 第三卷  
40. 止函 佛說頻毗娑羅詣佛供養經      49. 隨函 彌沙塞五分戒本  
42. 若函 四末曾有經 一卷
- 참고 14) 11. 養函 佛說彌勒下生成佛經: “개원록을 조사해보니 彌勒下生經은 전후에 걸쳐 여섯 번 한역되었는데 세 가지는 남아 있고 세 가지는 결실되었다. 지금 이 한역본도 또한 남아 있는 세 가지 한역본 중의 하나이다. 宋藏에 이 경이 없는 것은 이 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단본 장경에서 이 경을 얻어서 편입시킨다. 또 국본과 송본 장경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전부 수록한다(생략).”  
15. 知函 最勝燈王如來經: “이 경의 이 한역본은 송장에는 없다. 지금 단장에서 이를 얻어 편입시킨다. 또 옛 본인 송본 장경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경을 전부 수록한다(생략).”  
39. 容函 受歲經: “이 경은 단본 장경에 受歲經이라고 이름된 경이 있는데 단본 장경에는

있고 송본 장경에는 없으며, 또 송장에 受新歲經이라고 이름된 경이 있는데 송장엔 있고 丹藏에는 없다. … 수신세경을 옮겨 竟函에 편집하고, 단본 장경 容函의 것을 취하여 진본으로 삼는다. 또 옛 송본과 단본 장경을 보는 이를 위하여 다음에 그 正經을 모두 수록한다(생략).”

- 참고 15) 13. 才函 六字神呪經 76. 廻漢函(J·P에 해당됨)  
74. 執函 佛說木槵經 77. 俊乂密函(J·Q에 해당됨)
- 참고 16) 19. 羔函 摩逆經: “축법호가 한역한 魔逆經은 개원록을 조사해보니 이 경은 單譯經이고 國本과 丹本の 두 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가 없으며 송본은 저 두 본과 문장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 宋藏에서 착오를 일으켜 魔逆經이라고 이름붙이고 중복해서 여기에 편입시켰다. 그러므로 지금 송본을 삭제하고 國本과 단본을 취해서 眞本 魔逆經으로 삼는다.”
- 참고 17) 37. 暎函 大樓炭經 卷第一: “이 경 제19장 제8행에 ‘家室親屬四部兵’ 아래 송본과 단본 장경에는 15행의 글이 빠져 있어서 國本에 의하여 그것을 채워놓고 옛 송본과 단본 장경을 보는 이를 위하여 다음에 그 문장을 모두 수록한다.”  
67. 渭函 十八部論: “이 논을 고찰해 보면 송장에는 착오로 두 번 기재되고 있으며, 部異執論을 十八部論이라 이름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를 國本을 취하여 바로 잡았다.”
- 참고 18) 45. 竟函 受新歲經(容函에서 移動)
- 참고 19) 2. 服函 須摩提經(B·N에 해당됨) 68. 觀函 菩薩本緣經 卷上  
16. 必函 須眞天子經(D·N에 해당됨) 69. 驚函 雜寶藏經 卷第五  
46. 竟函 護淨經
- 참고 20) 75. 傾函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卷第十三
- 참고 21) 76. 廻漢函(J·P에 해당됨) (佛名經十八卷을 삭제하고 摩訶衍論 十卷과 玄文論 二十卷을 編入)
- 참고 22) 77. 俊乂密函(J·R에 해당됨) (一切經源品次錄 三十卷을 삭제하고 『校正別錄』 三十卷을 編入)
- 참고 23) “R. 丹本에 의거 國本을 수정한다”는 것은 송본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丹本에 의거하여 國本을 수정한 것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佐函 一字頂輪王經”(佐函 一字頂輪王經 第一卷 此則國本 宋本未見) 1件인데, 이 경전의 『趙城藏』과 『再雕藏』을 대조해 보면 서로 異版本임을 알 수 있는데 『조성장』은 『개보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다. 아마도 뒤에 改刻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재조장이 조조될 때 고려에는 송본(즉 개보장본), 國本(즉 초조장본), 단본(즉 거란장본) 등 세 판본이 구비되어 있었다. 이제 앞에서 제시된 校正別祿의 교정 내용을 분석하여 守其法師가 『재조장』을 조조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된 판본을 구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조장의 일차적인 저본으로 송본이 활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교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 A”의 “國丹本(또는 二本, 東北二本, 他本)에 의해 宋本을 교정한다”는 것은 송본(즉 개보장본), 國本(즉 초조장본), 단본(즉 거란장본) 등 세 본

가운데 송본을 저본으로 삼고, 국본과 단본을 참고하여 송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 다음 그 송본을 재조장의 저본(즉 등재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종래의 견해처럼 재조장이 초조장을 저본으로 했다면, 당시에 수기법사는 오류가 없는 초조장본을 저본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송본의 오류를 교정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수기법사가 재조장본의 저본으로서 초조장본이 아닌 송본을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송본의 오류를 교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형 I”의 “宋本에 없는 것을 丹本에 의거 編入한다”는 것은 송본에 없는 경전을 단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편입시킨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수기법사는 국본이 아닌 송본을 중심으로 판본 비교를 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국본이 아니라 송본에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국본에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송본에 있고 없는 것이 문제시 되었던 것이다. 수기법사는 재조장본의 저본으로서 국본이 아닌 송본을 활용했기 때문에 송본을 중심으로 송본과 다른 본을 대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종래의 견해처럼 재조장이 초조장을 저본으로 했다면, “宋本에 없는 것을 丹本에 의거 編入한다”는 표현 대신에 “國本에 없는 것을 丹本에 의거 編入한다”고 표현되었을 것이다.

셋째, “유형 K”의 “宋本을 國丹本<sup>1)</sup>으로 대체한다.”는 교정 내용에서 수기법사는 재조장의 일차적인 저본으로서 국본이 아닌 송본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1) 교정별록에서는 송본을 삭제하고 국본과 단본을 취해서 魔逆經의 진본으로 삼는다고 했다(“今檢宋經, 全是後念函中, 文殊師利悔過經耳. 宋藏錯亂 名魔逆經, 重編於此. 故今去宋, 取國丹本爲眞魔逆經焉. 後賢欲知今所去經是何等者, 請見念函文殊師利悔過經, 卽全是耳. 今爲看舊宋藏者, 具錄正經于左.”). 이 기록에만 의거하면 교정별록의 校勘記에서 이른바 마역경의 저본이 국본인지 단본인지 또한 筆寫 板刻인지 覆刻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재조장본 魔逆經 卷末 校勘記에는 국본과 단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鄉本 즉 국본을 취한다고 하였다(“今檢宋經, 全是後念函中, 文殊師利悔過經耳. 宋藏錯亂 名魔逆經, 重編於此. 故今去宋, 取鄉本爲眞魔逆經焉. 後賢若疑今所去經是何等者, 請見念函文殊師利悔過經, 卽全是爾耳.”).

만약 종래의 견해처럼 재조장이 초조장을 저본으로 했다면, 당시에 수기법사는 오류가 없는 국본을 저본으로 활용하면 그만이었고, 굳이 國丹本으로 宋本을 대체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교정 내용도 “송본에는 이런 저런 오류가 있다”는 표현으로 기재되었을 것이다.

넷째, “유형 L”의 “國本에 의거 宋本을 수정(脫文 補入 등)한다”는 교정 내용에서도 분명히 수기법사는 재조장의 일차적인 저본으로서 국본이 아닌 송본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재조장의 이차적인 저본으로 단본이 활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교정 내용으로는 “유형 C”의 “國宋本·丹本을 존속시킨다.”, “유형 H”의 “國宋本을 丹本으로 대체한다.”, “유형 I”의 “宋本에 없는 것을 丹本에 의거 編入한다.” 등의 교정 내용이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재조장본의 상태를 보면, 재조장본은 단본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 판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본은 재조장본의 저본이 되었지만 판각의 등재본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 재조장의 이차적인 저본으로 국본이 활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교정 내용으로는 “유형 R”의 “丹本에 의거 國本을 교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 당시에 송본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丹本에 의거하여 國本을 수정한 것으로서(“佐函 一字頂輪王經第一卷 此則國本 宋本未見”), 국본을 수정한 다음 재조장본의 저본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반면 앞에서 살펴본 교정별록의 내용과는 달리 교정별록에는 교정이 가해지는 판본 즉 저본에 대해 애매하게 기술된 교정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 E”의 “三國本の 闕文을 本論에 의거 補入한다.”, “유형 F”의 “丹本에 의거 國宋本을 교정한다.”, “유형 G”의 “明度經에 의거 國宋本을 교정한다.”, “유형 H”의 “國宋本을 丹本으로 대체한다.”, “유형 J”의 “重出, 重編의 이유로 國宋本을 삭제한다.”, “유형 L”의 “國本에 의거 宋丹本을 수정(脫文 補入 등)한다.” 등의 교정 내용을 보면 마치 여러 판본 즉 송본과 다른 판본을 동시에 교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정은 송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형 B”의 “國宋本을 취한다.”는 것은 國宋本을 저본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國宋本을 지칭하는 경우 板刻時에는 國宋本 가운데 어느 하나를 底本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경우의 재조장본은 송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조장본이 국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 국본은 이전에 송본을 복각한 국본인 셈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즉 “유형 B”인 “國宋本을 취한다.”의 유형에 해당되는 재조장본은 개보장본의 복각본인 조성장본과 行字數, 字形, 글자의 크기, 글자 사이의 간격 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정별록에는 국본의 오류를 지적만 하고 교정은 하지 않은 경우<sup>2)</sup>도 있는데, 이것은 재조장의 간행시에 국본 즉 초조장본을 저본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 4. 결 언

본 연구는 현존하는 13종의 개보장본을 중심으로 조성장본, 초조장본, 재조장본의 대조 분석을 통해 초조장본, 재조장본의 저본에 대해서 다시 고찰해보고, 교정별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재조장의 저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 
- 2) ① 57. “孔函發智論 第八卷”: “송본의 제3장 제9행의 ‘當勝解’란 구절 아래의 ‘…’라는 구절에서 ‘…’라고 한 구절에 이르기까지의 76字는 국본과 단본에도 모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글을 검토해보니 이곳 책에는 제4장 제2행 이하에 비로소 이 내용이 실려 있다. 이 피차간의 차이를 고찰해보니 어디에 있어도 무방한 까닭에 이를 고칠 필요가 없다. 다만 국본에는 이 글이 이 곳 저 곳에 다 있으니 이는 몹시 錯亂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② 61. “側函阿毘達磨大毘婆沙論 第三十二卷”: “이 권은 송본의 경우 제7장 이하로는 세 곳의 글이 문맥과 뜻이 단절된 곳이 있다. … 지금 이것을 국본과 단본에 의거하여 뺄 부분은 빼고 더할 부분은 더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 국본 가운데에서도 제9장에서 … 모두 12행의 글도 또한 잘못 두 번 베껴 쓴 것이다. 때문에 지금 이것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고찰을 통해서 서언에서 언급한 初雕藏과 再雕藏은 開寶藏의 修訂 覆刻本으로 추정했던 필자의 견해가 여실히 입증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조장의 경우 守其法師가 國本·丹本·宋本 가운데 대부분 宋本을 제1차적인 저본으로 삼은 다음 이 宋本을 國本·丹本과 대교하고, 國本·丹本 등에 의거해서 宋本을 교감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이 수정된 송본은 바로 재조장을 간행함에 있어 그 판각의 저본 즉 登梓本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宋本에 없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經典은 國本이나 丹本 등을 제2차적인 저본으로 삼아 이를 수정하여 登梓本으로 삼아 판각을 하거나, 새로 등재본을 마련해서 판각한 다음 재조장에 編入시키거나 代替시켰던 것으로 주장했던 필자의 견해도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지금까지 재조장의 底本(즉 登梓本)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해되어 왔던 것은 교정별록의 내용에서 재조장이 조조될 때에 이용된 底本(즉 登梓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급이 없었고, 또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48冊. 1976.
- 千惠鳳. “韓國의 古代版畫 - 初藏 御製秘藏詮의 木版畫.” 『季刊美術』 제3호(1977).
- 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1984).
-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 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查研究』. 成保文化財團, 1988.
- 童瑋. “北宋『開寶大藏經』雕印考釋及目錄還原.” 書目文獻出版社, 1991.
- 竺沙雅章. “宋元版大藏經の系譜.”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汲古書院, 2000.
-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書誌學研究 第48輯(2011. 6)

제32권 제3호(2001).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5집(2003).

柳富鉉.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書誌學研究』 33집(2006).

柳富鉉. “高麗再雕大藏經과 開寶勅版大藏經의 比較 研究.” 『불교학연구』 16집  
(2007).

柳富鉉.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45집(2010).

柳富鉉. “『御製秘藏詮』大藏經 板本の 文字異同과 校勘” 『書誌學研究』 47집  
(2010).

高麗大藏經研究所. 『南禪寺藏 高麗版『初雕本大藏經』調查完了 報告會 資料集』.  
2010.